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7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428 호

'왜색불교'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창가학회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불교계의 포교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6월 23일 "한국 창가학회(KSGI)는 현재 한국에 40만 가구, 120여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한국 창가학회 본부와 종교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KSGI의 신도수는 90년대 초반 60만 명에서 10년만에 2배나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의 전체 신도가 6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놀랄만한 수치다.

### 日 창가학회 국내회원 10년새 2배 늘어
### NGO·각종 사회운동 적극동참 이미지 쇄신
### "종무개선 · 포교방법 개발등 하드웨어 정비시급"

# 포교마당 유사불교에 내주나?

KSGI는 '남묘 호렌게쿄'를 외는 일본식 염불, 한국을 침략한 장군을 호법보살로 숭앙하는 점, 반일 감정 등으로 한국불교에서는 불교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KSGI의 급성장은 불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그만큼 확산 되고 있다는 게 불자들의 염려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신도 조직 강화, 대중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개발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정보문화 네트워크의 K씨는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포교방법 개발, 신도교육 강화, 청정한 승가 확립 등 불교 이미지 개선과 포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도 "KSGI의 성장은 불자들이 이탈하거나 잠재 불자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불교의 존립기반을 잠식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불교도 종무조직 정비와 제도 개선, 포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포교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KSGI와 또 다른 유사불교의 세력이 확산되는 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함으로 포교의 마당을 잠식당해 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교 일선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유사 불교 종파들이 기복 불교적 인식을 벗어던지고 각종 NGO 활동에 동참하고, 사회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 최근 한국불교가 환경, 평화 운동 등에 적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획기적인 포교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조계종의 한 포교사는 "유사종교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수행체계를 바로잡는 등 포교의 하드웨어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진단하며 "이를 위한 범불교적 연구 시스템도 하루 속히 갖춰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 불교국가 법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5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실의에 빠진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8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성금은 스리랑카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2면〉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후원 :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성금 보내 주실 곳 : 총무원 모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55568 (재)불교중앙교원

##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 기행 코스

김제 청운사
연 밭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 밭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및 연꽃 모종 구입

### 기행 일시 및 인원

7월 12일(토)오전6시~오후8시. 선착순 200명
7월 19일(토)오전6시~오후8시. 선착순 200명

###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 · 여행자 보험금 포함)

### 참가 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 당일 오전 6시까지 조계사 앞 집결

## 대정부 종책자문위

### 조계종, 중순께 창립

조계종이 대정부종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자문위원 선정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순경 창립대회를 봉행한다.

총무원은 6월26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중앙종회 2명(법등, 현응), 본사 주지 3명(해인사, 은해사, 불국사), 집행부 3명(총무부장, 기획실장, 사회부장), 재가신도 14명 등 모두 22명으로 대정부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한명우 기자

## 팔만대장경 연내 동판 제작

### 해인사, 공개입찰통해 업체선정

세계문화유산이자 불교문화의 정수인 팔만대장경이 동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해인사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정신을 민족의 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동판으로 제작하는 불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6월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동판 팔만대장경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동판 팔만대장경은 81,258장의 대장경 앞뒷면을 동판 한쪽 면에 새겨 넣는 방식으로 모두 162,516장이 제작되며,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건립되는 '신행 · 문화 도량' 에 세워질 '팔만대장경 판전 법당' 내 좌우 면에 보관된다.

해인사는 동판 대장경을 자손에게 전해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확대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제작 과정에서 16만 명의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해인사 원철스님은 "동판 팔만대장경은 1만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며 "보관용 동판 대장경 외에 보급용 동판 대장경도 제작해 신앙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북한산 보고서

### 불교비하 물의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불교와 환경단체 비하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관련해 불교계는 6월27일 '불교 폄하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무총리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11일 오후 2시 5천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범불교도 항의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노선재검토위 보고서에는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시설이고, 정부가 시행하면 환경 및 수행 호나경 훼손시설인지…'라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한편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 가자!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 적멸보궁 참배하며 신심도 키우고

**7월 22~24일**
**사자산 법흥사 · 백덕산 관음사**

◆일 정: 2003년 7월 22일(화)~ 7월 24일(목) 2박3일
◆장 소: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 백덕산 관음사 일대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의전화: 02) 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 7월 22일 오전 10시 종로 조계사 앞
※도 착 : 7월 24일 오후 6시 종로 조계사 앞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한마음선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준)(운영위원장 김희욱)가 교단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가 6월 2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승가의 청렴성 확보'와 '재가의 자정능력 제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

교단자정센터는 승가의 청렴성 확보와 관련 "범어사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2002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아직 종단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종단 자체적인 전면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정부와 정당, 종단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 개최 △종단 중앙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 소임자에 대한 '공직청규' 제정 △종단 공직소임자 부정부패 민원창구 정식 개설 등을 촉구했다.

재가의 자정능력 제고 부분에서는 "'불교 공동체윤리 정립을 위한 365일 담론'을 통해 일상 신행활동상의 토대 강화와 재가자 조직체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연대 고리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65일 담론은 24가지 토론주제를 선정해 2주마다 온라인(on-line)을 통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게시한다. 또 분기별로 집중 논강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보완한 후 소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 교단 청렴성 제고 위한 제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교단자정센터의 교단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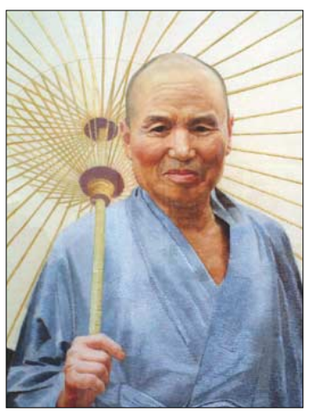
남동우(취재1부 기자)


#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장보살)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우산속의 스님)

**누구든 원하는 소재 · 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불교자수 특징**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명주실 · 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 법당 탱화 · 불화로 적격

**용 도**
* 불화(탱화, 불보살도)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기업기념사진 (창업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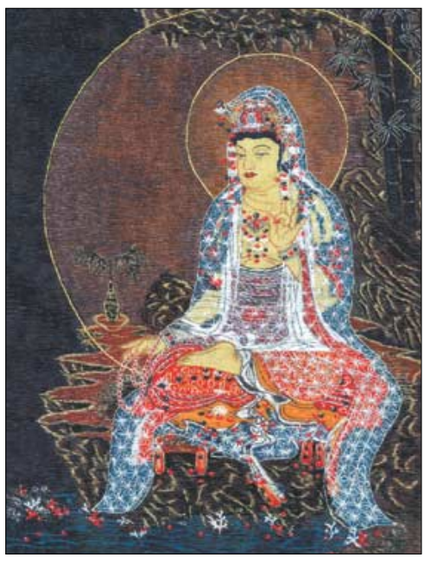
**주문시 유의사항**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또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안내**
* 대형(60cm×80cm) * 중형(30cm×40cm)
* 소형(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 · 한암 · 효봉 · 동산 · 청담 · 성철 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 소장용 · 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27-0697 www.mahamall.co.kr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수월관음)